

## 「KNF형 뉴딜」을 기반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

정상봉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다 사다난했던 경자년(庚子年)이 저물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실과 신뢰, 그리고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하얀 소’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평온함이 깃들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의 일상에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19는 사회와 산업계 전반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이에 따른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전환하고 업무혁신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산업계와 지역경제의 위기극

복에 동참하고자 「2020년 CEO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핵연료 개발에서부터 최종 검증까지 독자 수행이 가능한 핵연료집합체 특성 시험시설을 구축해 운용하고, 방사성폐기물 60드럼을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최초로 인도하는 등 원자력기업으로서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올해도 우리 원자력 산업계에는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전환의 본격화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KNF형 뉴딜」을 선포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사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보전형 신사업 추진 및 국민안심 환경망 구축으로 그린 뉴딜을 선도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 지역사회 및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1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KNF형 뉴딜’의 추진에 전

사적 역량을 모아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안전 관리와 품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안전한 원자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원자력연료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원자력산업〉 독자 여러분께서 원자력 산업계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KLIF*